

myTinyXeTeX이란 무엇인가?

No-Body

2009년 3월 18일

요약

이 글은 myTinyXeTeX을 소개하기 위하여 tinyKCmenu를 이용하여 작성하는 것이다. myTinyXeTeX은 일종의 portable \TeX 시스템으로, 50 메가바이트 정도의 크기로 웬만한 텍 작업은 모두 할 수 있게 구성된 변종 \TeX Live 시스템이다. Karnes가 시스템을 구성했고, 원래는 도스창에서 노트패드(메모장)를 이용하여 작업하게 설계되었던 것을 likesam이 전용 에디터 겸 컴파일 환경 (tinyKCmenu)을 붙였다.

1 소개

KC2008 설치 프로그램은 1.2기가가 넘는다. 이처럼 방대한 시스템이 필요한 때는 당연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지만 가끔 이 엄청난 시스템이 부담스러울 때도 있다. 특히 여행 중이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다른 사람의 컴퓨터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 일일이 텍 시스템을 전부 설치하는 것은 낭비도 낭비려니와 시간적인 지루함을 이기지 못할 때도 있는 것이다.

그래서, 소위 포터블 텍 시스템, 즉 USB 같은 매체에다가 넣어 가지고 다니면서 필요할 때 간단한 문서 정도를 작성할 수 있게 하는 텍 시스템은 불가능한가를 항상 고민했다. 그 결과로 나온 것이 이것, myTinyXeTeX이라는 물건이다.

이 간략한 시스템을 만들게 된 사연은, myTinyXeTeX에 포함되어 있는 샘플 문서 겸 안내서 `introeuc.tex`에 이미 소상하게 소개되어 있으므로 여기서는 이 시스템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소개하고자 한다.

전혀 다른 목적으로 제작된 프로그램이지만, 1995년의 한 \TeX 을 떠올리면 이 시스템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. myTinyXeTeX의 벤치마킹 대상은 한 \TeX 이었다. 한 \TeX 정도의 실행 성능과 편의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목표 가운데 하나이다.

2 사용 안내

2.1 먼저 알아두어야 할 사항

myTinyXeTeX(이후 TXTeX)을 사용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알아두는 것이 좋다.

- (가) TXTeX은 `pdflatex`, `latex`, `tex`, `pdftex` 과 같은 명령을 제공하지 않는다. 오직 `xelatex` 하나만을 쓸 수 있다.
- (나) TXTeX은 TeXLive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지만 TeXLive의 각종 시스템 관리 명령들(예를 들면 `updmap`, `tlmgr` 등)이 제공되지 않는다. 당연히 즉시 업데이트 등은 불가능하다. 50 메가짜리 포터블 버전에 너무 많은 것을 바라지 마시라.
- (다) TXTeX에 포함된 여러 패키지들은 원형과 다를 수 있다. 그러므로 이 파일 묶음에 들어 있는 어떤 패키지를 제대로 설치된 KC2008로 옮겼을 때 동일하게 동작하지 않을 수 있다.
- (라) TXTeX은 `\usepackage{kotex}` 명령을 이해하지 못한다. 사용할 수 있는 것은 `\usepackage{xetexko}` 뿐이며, 아예 이런 명령 없이 한글을 사용하도록 설계된 `xoblivoir` 클래스를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.
- (마) `dvi` 파일, `ps` 파일은 만들어지지 않는다. 따라서 `dvi viewer`나 `ps viewer`는 없다. 용량의 문제로 `ghostscript`도 포함하지 못하였으므로 `pstricks`와 같은 패키지를 쓸 수 없다. 현재 버전은 `metapost`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, 그림 그리기는 전적으로 외부 그림으로 처리하든가 `pgf/tikz`를 이용하여야 한다.
- (바) 표준 뷰어는 `sumatrapdf`이며,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다. 명령행에서는 `viewpdf`를 실행하거나 `tinyKCmenu`에서 이 뷰어를 부를 수 있다. 물론 만들어진 `pdf`를 Adobe Reader로 볼 수도 있으나, 모든 컴퓨터에 Adobe Reader가 설치되어 있다고 가정할 수 없으므로 전용 뷰어를 포함하였다.
- (사) 일반적인 문서는 대부분 컴파일해볼 수 있지만, `fontenc` 패키지나 L^AT_EX 형식의 폰트 관련 명령과 패키지는 동작하지 않는다. 폰트 관련된 부분은 X_YL_AT_EX이 시스템 폰트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.
- (아) TXTeX은 작업하는 컴퓨터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않는다. 심지어 레지스트리를 이용하지도 않으며 임시 파일 폴더에도 접근하지 않는다.

- (자) T_XT_EX은 별도의 설정 과정이 필요없다. 그냥 아무 컴퓨터에나 꽂고 `run.bat`을 실행하면 T_EX이 돌 수 있는 모든 환경설정을 이 배치파일이 임시로 행한다. `run.bat`이 만든 `cmd` 창을 닫으면 모든 환경은 소멸된다. 따라서, `run.bat`이 실행한 `cmd` 창을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닫으면 안 되며, `tinyKMenu`나 기타 에디터 등도 폴더로부터 더블클릭하지 말고 이 창에서 명령행으로 실행시켜야 한다.
- (차) 최초 실행 시 폰트 캐시를 할 것인지 묻는다. 적어도 한 번은 이 폰트 캐시를 해주어야 하는데, 컴퓨터마다 설치된 폰트가 다 다르므로 새로운 컴퓨터에서 새로 시작하는 경우에는 폰트 캐시가 필수적이다. 같은 컴퓨터에서 반복 사용하는 경우라면 처음 실행 이후에는 하지 않아도 된다.
- (카) `tinyKMenu`는 매우 간단한 에디터와 컴파일/뷰 환경을 제공한다.

2.2 설치와 설정

다운로드 받은 `myTinyXeTeXext3KMenu4.exe`를 실행한다. 그러면 압축을 풀 폴더를 정하라는 메시지가 나오는데, 자신의 USB가 꽂힌 드라이브의 루트로 정해준다.

E:\

압축이 모두 풀리면(매체에 따라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다) 설치와 설정은 끝난 것이다.

2.3 실행

내 컴퓨터의 해당 드라이브를 열고 들어가보면 `run.bat`라는 파일이 있다. 이것을 더블클릭한다.

약간의 설정 작업이 끝나고 폰트 캐싱을 할 것이냐고 물어온다. 캐싱을 해야 한다면 `y`(반드시 소문자)를 입력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엔터를 쳐서 진행한다.

화면의 지시대로, 명령행에 다음 명령을 써넣고 엔터를 친다.

```
F:\myTinyXeTeXLive> tinykmenu
```

실행시 주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- `run.bat`은 반드시 해당 폴더에서 더블 클릭해야 한다.
- 폰트 캐시는 적어도 한 번 해주어야 한다.

- tinyKCmenu 는 반드시 명령행에서 명령을 적어넣는 방식으로 실행해야 한다. 폴더에서 더블 클릭하면 실행은 되지만 텍 관련 환경 설정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.

3 tinyKCmenu 와 문서작성

tinyKCmenu 는 일종의 통합환경 셸이다. 그러나 기능이 강력하거나 한 것은 아니고, 다만 TXTeX 을 조금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환경을 제공한다고 보면 된다.

3.1 메뉴

기능은 다음이 전부이다.

1. 파일 메뉴

New 새 파일을 작성한다.

New as template 으로부터 새 파일을 작성한다.

Open UTF-8 과 EUC-kr 두 가지가 있다. EUC-kr 인코딩의 한글 파일은 UTF-8 열기로 열리지 않는다.

Save UTF-8 과 EUC-kr 두 가지가 있다. UTF-8 인코딩만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지만, 샘플 파일을 열어보기 위해서 EUC 열기를 해야 하는 경우는 있다.

Print 소스 코드를 인쇄한다.

eXit 프로그램 실행을 종료한다.

2. 편집 메뉴

Copy/Paste 설명이 필요없겠다.

Undo 직전 동작을 취소한다.

Find, Search, Replace, regexp 찾기, 바꾸기.

3. 옵션 메뉴 : 편집창의 폰트를 바꿀 수 있다.

4. KCmenu 메뉴

Quick View 한번 컴파일하여 결과를 보여준다.

Compile Once 컴파일만 한 번 한다.

view PDF 생성된 결과물 pdf 파일을 보여준다.

Finalize 이 메뉴는 T_XTeX 만으로는 의미가 없다.

5. Help 메뉴

3.2 단축키

단축키는 다음과 같다.

Ctrl-O	열기
Ctrl-S	저장하기
Ctrl-Z	취소 (Undo)
Ctrl-F	찾기
F3	계속 찾기
Ctrl-R	바꾸기
F5	Quick View
F6	Compile Once
F7	view PDF

3.3 커서 이동, 기타

tinyKMenu 에디터의 화살표 키에 의한 커서 이동은 특이하다. 예전 한_TEX의 것과 거의 똑같으므로 한_TEX에 익숙하시던 분은 편하게 쓸 수 있을 것이다. 즉, 행 안에서만 이동하고 좌우 화살표 키로 이전/이후 행으로 이동하지 않으며, 비편집 영역으로도 커서가 이동해간다.

한글의 경우 on-the-spot 입력이 지원되지 않는데, 이것은 감안하고 쓰면 된다.

4 맺는 말

다시 강조하지만 이것은 본격적인 텍 시스템이 아니다. 그러나 사용자에게 필요한 요소는 어느 정도 갖춘, 텍 시스템으로 동작하는 장난감이다. 재미있게 즐겨주시면 다행이겠다.

T_EX Live와 마찬가지로 완전한 자유이며, at your risk로 사용하실 수 있다. 다만 흡족할 만한 사용자 지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, 완결된 프로그램을 지향하지도 않는 것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란다.